

대외분야 실물 · 금융부문 동향점검 및 대응방향

2021. 3. 15.

관 계 부 처 합 동

< 요약 >

◇ 경제회복 모멘텀 확산 및 대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
대외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검토

1. 동향 및 평가

□ 외국인직접투자

○ **(동향)** '18년 역대 최고치 기록 후 법인세 감면혜택 종료('18년) 및 코로나19 등으로 '19년(전년비 Δ 13.3%), '20년(Δ 11.1%) 감소

* 외국인직접투자(억불) : ('16) 213.0, ('17) 229.5, ('18) 269.0, ('19) 233.2, ('20) 207.5

- 업종은 ①금융보험, ②부동산, ③정보통신 順, 국가는 ①미국, ②싱가포르, ③몰타, ④중국 順으로 투자 유치

○ **(평가)** '20년 전세계 FDI 큰 폭 감소(전년비 Δ 42.7%) 대비 양호한 성과, 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FDI 크게 증가

* ('19→'20) AI 등 신산업 : 77→ 84.2억불(+9.3%), 그린뉴딜 2.4→ 4.8억불(+101.4%)

- 향후 글로벌 디지털경제 전환·GVC 재편 등 국내투자 유치 기회요인 확대

□ 해외직접투자

○ **(동향)** 우리기업 글로벌화 등으로 증가세였으나, '20년 코로나19로 일시 감소(전년비 Δ 14.6%)

* 해외직접투자(억불) : ('16) 403.6, ('17) 448.7, ('18) 513.8, ('19) 643.0 ('20) 549.1

- 금융보험업, 제조업이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, ①해외시장 진출, ②제3국 진출, ③자원개발 목적 順으로 투자

○ **(평가)** 현지법인 생산·운영을 위한 중간재·완제품 수출, 본원 소득 유입, M&A를 통한 GVC 고도화 등 우리경제 기여

- 주요국 투자규모 등 비교* 시 향후 증가 가능성

* GDP 대비 누적 해외직접투자(%) : (美) 44, (英) 69, (獨) 45, (韓) 27

□ 해외수주

- **(동향)** '20년 351억불로 최근 5년간 최대 실적 달성, '21.2월 기준 39억불로 견조한 실적 시현
 - * 해외수주액(억불) : ('16) 282 ('17) 290 ('18) 321 ('19) 223, ('20) 351, ('21.1~2) 39
- 지역별로는 ①중동, ②아시아, ③중남미 順으로 진출하였으며, 유형별로는 ①단순도급, ②투자개발형, ③시공사금융주선 順
- **(평가)** '20년은 코로나19·저유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, 전방위 정책지원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
 - 향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주시장 회복 전망,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개발형 전환 등은 과제

□ 외국인자금 유출입

- **(동향)** 주식자금은 차익실현 등으로 순유출되고 있으나, 채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외화유동성도 양호
- **(평가)** 외국인자금 유출입, 외화유동성은 대체로 안정적이거나, 최근 미국채금리 상승 등 불확실성 요인 잠재

2. 대응방향

- **(외국인직접투자)** 외국인투자 플러스 전환을 위한 「첨단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」 마련('21.上)
 - 첨단 외투유치 인센티브 강화, 핵심 프로젝트 IR 등 중점 추진
- **(해외직접투자)** 맞춤형 정보 제공(해외진출 통합플랫폼, '21.11월), 다층적 지원체계 운영 등 해외진출 기반 강화
 - 현지법인-국내기업 매칭 강화, 한국인 해외고용 지원(사회보장협정 확대 등) 등을 통해 해외투자의 국내 경제 기여도 제고
- **(해외수주)** 「해외수주 활성화방안」('20.6월) 후속조치 적극 이행 및 1~2분기 실적 모니터링 → 해외수주 보강대책 마련('21.上)
 - 정책펀드, 수은 특별계정 등 활용한 금융지원을 가속화하고,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('20년 신설) 등 역량지원 강화
- **(외국인자금 유출입)** 외환시장, 外資 유출입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외환거래 인프라 개선 및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
 - 외국인 투자자 신뢰 유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노력 지속

순서

I. 검토 배경	1
II. 대외부문 동향 및 평가	2
1. 외국인직접투자	2
2. 해외직접투자	4
3. 해외수주	6
4. 외국인자금 유출입	8
III. 대응방향	11
1. 외국인직접투자	11
2. 해외직접투자	13
3. 해외수주	15
4. 외국인자금 유출입	17
IV. 향후 추진계획	18

I. 검토 배경

◇ 경제회복 모멘텀 확산 및 대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외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검토

□ 대외 기회요인 선점 및 경제회복 모멘텀 확산 필요

-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다자주의 회복 기대, 글로벌 GVC 재편, 디지털·저탄소 경제전환 등 대외경제 구조적 변화 진행
 - 백신 접종 본격화, 코로나19 확산세 둔화, 주요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실시 등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 점증
 - 고용 둔화* 등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 회복세** 유지 등 대외부문 적극적 역할 긴요
 - * 취업자 증감(만명, 전년비): ('20.9)△39.2 (10)△42.1 (11)△27.3 (12)△62.8 ('21.1)△98.2
 - ** 수출(전년비,%) : ('20.1/4)△1.9 (2/4)△20.3 (3/4)△3.4 (4/4)4.2 ('21.1)11.4 ('21.2)9.5
- ⇒ 대외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, 해외수주 확대, 전략적 해외 진출, 첨단투자 유치 등 성과를 제고하여 국내경제 반등 기여

□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잠재 리스크 관리 필요

- 그간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, 주요국 재정·통화 확대, 백신공급 및 경기 조기회복 기대 등으로 안정적 흐름
 -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, 美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
 -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둔화,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시장변동에 대한 주요국 취약성이 확대된 점도 위험요인
- ⇒ 외화유동성, 대외건전성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

Ⅱ. 대외부문 동향 및 평가

1 외국인직접투자

- ◇ 코로나19로 감소('20년, $\Delta 11.1\%$)하였으나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며, 신산업·그린뉴딜 분야 FDI 확대
- ◇ 디지털 경제 가속화, GVC 재편 등 기회요인 활용 필요

가. 동향

- (전체) '18년 역대 최고치 기록 후 법인세 감면혜택 종료('18년) 및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'19년(전년비 $\Delta 13.3\%$), '20년($\Delta 11.1\%$)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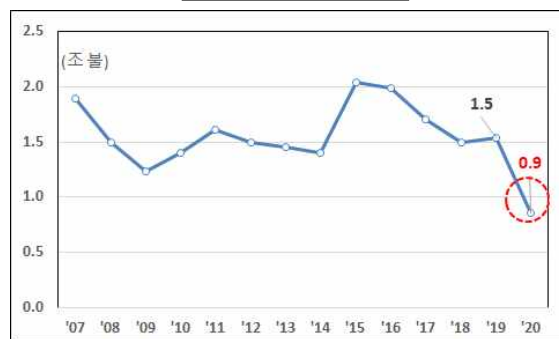
※ '20년 전세계 FDI는 코로나19로 42.7% 감소(1.5→0.86조불)

외국인직접투자(신고기준)



* 출처 : KOTR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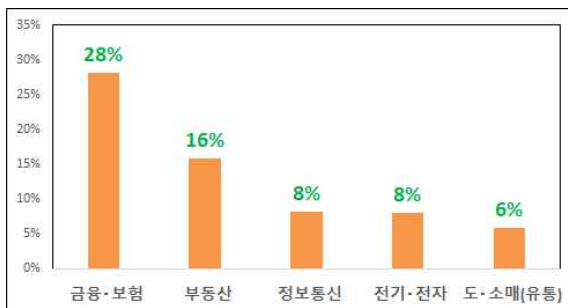
전세계 FDI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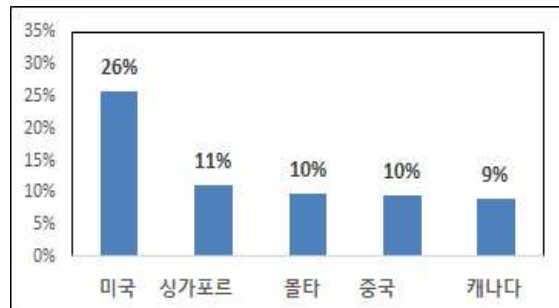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UNCTAD

- (업종·국가별) 업종은 ① 금융보험, ② 부동산, ③ 정보통신 순, 국가는 ① 미국, ② 싱가포르, ③ 몰타, ④ 중국 순으로 투자 유치

'20년 세부업종별 투자 비중



'20년 국가별 투자 비중



나. 평가 및 전망

□ **(평가)** '20년 전세계 FDI가 코로나19로 큰 폭 감소(1.5→0.86조불)한 반면,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(6년 연속 200억불 달성)

- 특히 K-방역, 전략적 IR 활동 등에 힘입어 신산업, 첨단 소부장, 그린뉴딜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FDI* 크게 증가

* ('19→'20년) AI 등 신산업 : 77→ 84.2억불(+9.3%), 그린뉴딜 2.4 → 4.8억불(+101.4%)

□ **(전망)** '21년은 코로나19, 글로벌 GVC 재편,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도전과 기회요인 혼재

- **(도전)**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,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투자 위축*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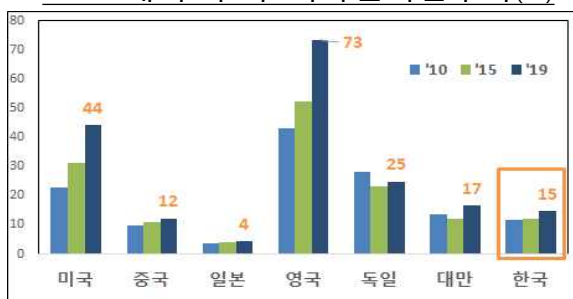
* '21년 전세계 FDI는 △5~10% 감소 전망(UNCTAD)

- 美, 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회복 여부, 백신 보급 등에 따른 기업경영 정상화가 회복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

- **(기회)** 전세계적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ICT 등 첨단 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한국에 관련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가능성

- 대외개방도가 높고,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한국에 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 가능

GDP 대비 누적 외국인직접투자(%)



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국내경제 기여

구분	국가전체 대비 비중('19년)
매출	10.8% (475조원)
고용	5.6% (772천명)
수출	18.6% (1,007억불)

☞ K-방역, K-뉴딜 등 우리 강점을 기반으로 해외의 안정적 GVC 구축 및 첨단산업 육성 수요를 국내투자로 유인 필요

- ◇ 코로나19로 일시 감소('20년, $\Delta 14.6\%$)하였으나, 우리기업의 글로벌화 추세 등 감안 시 중장기 증가 가능성
- ◇ M&A를 통한 GVC 고도화, 본원소득 유입 등 우리경제 기여

가.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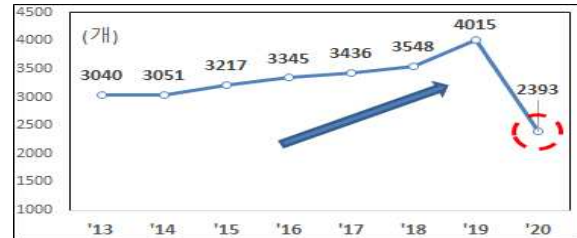
- (전체) 해외직접투자는 '14년(286억불) → '19년(643억불) 5년 연속 증가, '20년(549억불, 전년비 $\Delta 14.6\%$)은 코로나19로 일시 감소

해외직접투자



* 출처 : 수출입은행

해외 신설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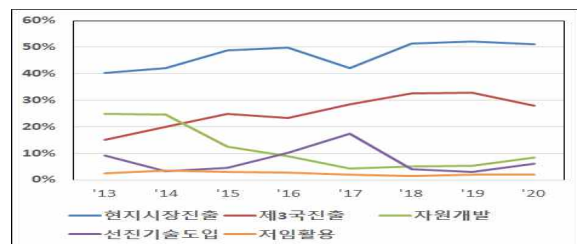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수출입은행

- (업종·목적별) 금융보험업, 제조업이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, 해외시장 및 제3국 진출, 자원개발 목적 순으로 투자

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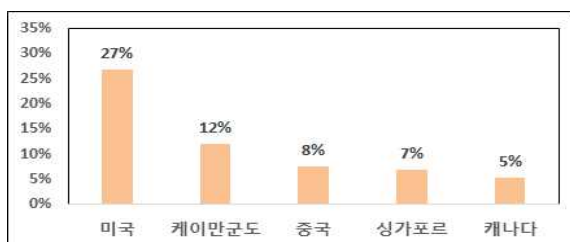


목적별 해외직접투자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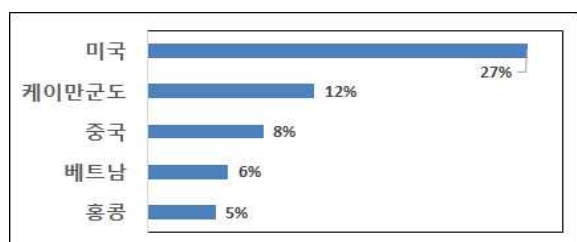


- (국가별) '20년 ①美(첨단 제조업, 금융), ②EU(동유럽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 금융), ③케이만군도(對美 금융투자 우회처), ④中(전기차, 반도체 등) 순으로 투자

'20년 국가별 투자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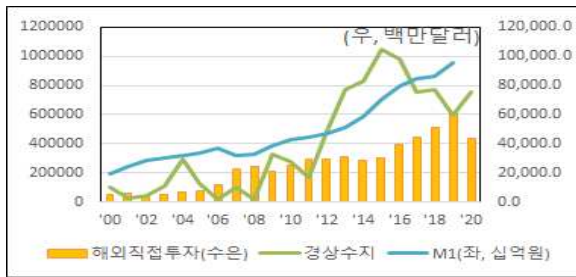
'16-'20년 누적기준 상위 5개 투자국



나. 평가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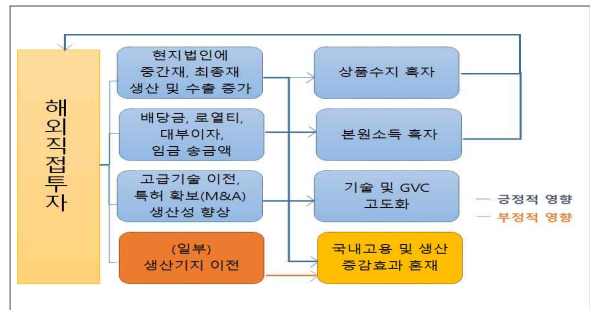
- (평가) 그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경상수지 흑자, 국내 유동성 증가, 우리기업 글로벌화 등에 기인
 - 현지법인의 생산·운영을 위한 모기업의 중간재·완제품 수출*, 본원소득** 유입, M&A를 통한 GVC 고도화 등 우리경제에 기여
 - * 對현지법인 순수출액: ('15) 1,090 ('16) 1,132 ('17) 1,381 ('18) 1,116 ('19) 938
 - ** 순이익+배당금+로열티+한국인 임금(역불): ('16) 164.7 ('17) 202.6 ('18) 162.6 ('19) 173.2
 - 단,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에 따른 산업 공동화 우려 有
 - 국내 제조기반 및 핵심 기술력 제고 노력 병행 필요

경상수지 및 M1* 추이



*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등 현금성 자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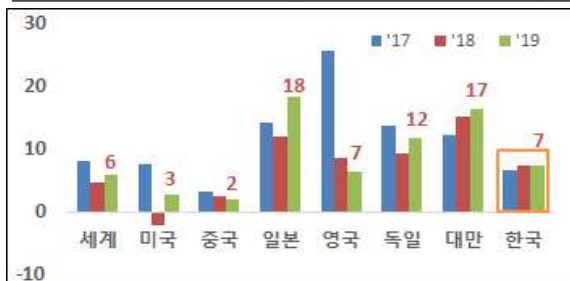
해외직접투자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



- (전망) '21년은 코로나19 불확실성, 풍부한 유동성 및 '20년 위축된 해외투자 수요 재개 등 증감요인 상존
 - 다만,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주요국*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중장기적 증가세 지속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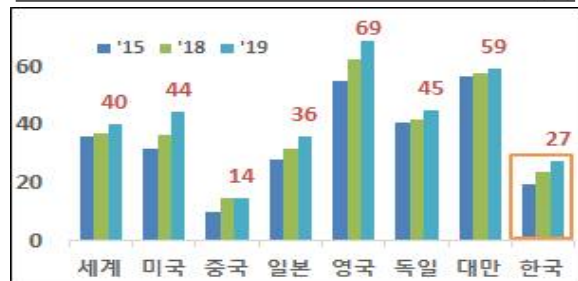
* 미국, 중국, 일본, 영국, 독일, 대만

주요국 총고정자본형성* 대비 해외직접투자(%)



* 생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국내자본 형성액

주요국 GDP 대비 누적 해외직접투자(%)



* 출처 : UNCTAD

☞ 해외투자의 국내경제 기여도 제고 등 위한 질적 개선 필요

- ◇ '20년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에도 해외수주 실적 반등(351억불)
- ◇ '21년 글로벌 수주시장 회복 기대 下 해외수주 견조한 실적 유지를 위해 금융조달, 사업기획 등 경쟁력 강화 필요

가. 동향

- (전체) '20년 실적은 351억불로 전년 대비 128억불(57%) 증가하였으며, '21년은 2월말 기준 39억불로 견조한 실적 시현

연도별	'15	'16	'17	'18	'19	'20	'21.1~2
수주액(억불)	461	282	290	321	223	351	39
(건수)	(697)	(607)	(624)	(662)	(667)	(567)	(8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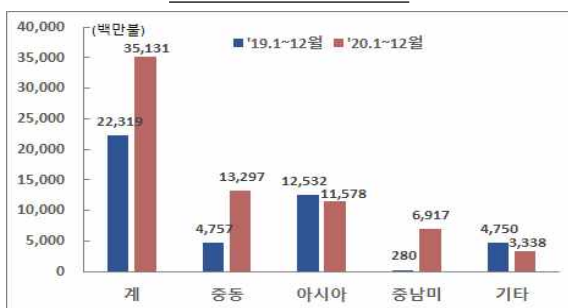
- (지역·공종별) 플랜트·토목 중심으로 중동지역* 수주를 회복했으며, 중남미**에서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진출지역 다변화

* 사우디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시설(18억불),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(18억불), 알제리 하시메사우드 정유공장(17억불), 이라크 알포 신항만(26억불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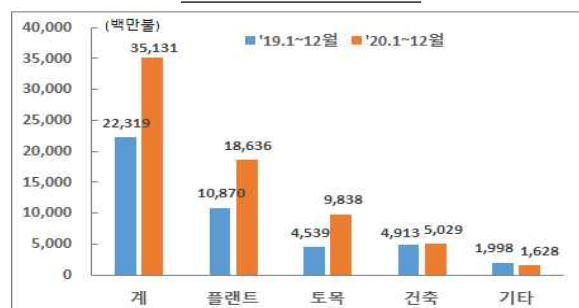
** 파나마 메트로 3호선(28억불),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(37억불) 등

- (지역별) 중동(38%), 아시아(33%), 중남미(20%), 기타(9%)이며, 중남미 비중 대폭 상승('19년 1.3% → '20년 19.7%)
- (공종별) 플랜트(산업설비) 수주가 절반 이상(53%)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, 토목(28%), 건축(14%), 기타(5%) 순
- (유형별) 단순도급(97.6%), 시공사금융주선(0.7%), 투자개발형(1.7%)

지역별 수주실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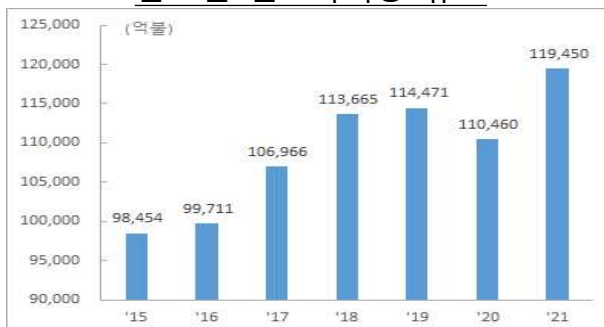
공종별 수주실적



나. 평가 및 전망

- **(평가)** '20년에는 코로나19·저유가 등으로 인한 발주 취소·연기 등 어려운 해외수주 여건에도 불구하고, 최근 5년간 최대 실적 달성
 - 「해외수주 활성화 방안」(‘20.6월, 대경장)을 통해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, 30대 핵심 프로젝트*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
 - * ①중요성, ②지역 다각화, ③'20~'21년 수주 가능성을 고려하여 '20.6월 선정
- **(전망)** 글로벌 수주시장 회복 전망 下에 수주여건 변화 대응 필요
 - (글로벌 수주시장) '21년 각국 경기부양책 등에 따라 인프라 시장이 확대될 전망*이며, 특히 아시아 지역 인프라 수요 高
 - * '21년 글로벌 인프라 시장은 전년대비 8.1% 증가한 11.9조불 전망(IHS Markit, '20.12)
 - 다만, 본격적인 발주 확대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며,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, 국제유가* 변동 등 지속 모니터링 필요
 - * 美 에너지정보청(EIA, '21.2월) 유가 전망(\$/B, Brent) : ('18) 72 ('19) 64 ('20) 43 ('21^o) 53

글로벌 인프라시장 규모



* 출처 : IHS Markit('20.12)

지역별 인프라시장 성장률

지역	규모(억불)	성장률(%)
아시아	60,645	10.7
유럽	28,341	7.2
북미·태평양	20,072	3.7
중동	4,721	4.6
중남미	4,535	4.9
아프리카	1,137	5.4
계	119,450	8.1

* 출처 : IHS Markit('20.12)

- (수주여건) 우리 기업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발주처의 금융조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확대가 중요
 - 아울러, 투자개발형* 전환, 사업개발·엔지니어링 등 소프트역량 중시, 글로벌 ESG 강화 등 여건 변화에 종합적 대응 필요
 - * 개발자가 설계·금융조달·건설·운영 등 사업 숲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

☞ 금융지원, 사업기획 지원, 전문인력 양성 등 통해 질적 고도화 추진

◇ 그간 외환시장과 외국인자금 유출입은 대체로 안정적 흐름을 보였으나, 최근 美 국채금리 상승 등 불확실성 요인 잠재

1. 동향

□ (외환시장) 환율은 변동성 지속, 외화유동성은 양호

- (환율) '20년 하반기에 글로벌 달러약세, 수출호조 등으로 하락했으나, 최근 美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글로벌 달러강세 등으로 상승*

* 원/달러: ('20.6월말)1,203 (12월말)1,086 ('21.1월말)1,119 (2월말)1,124 (3.12)1,134

- (외화유동성) 스왑레이트*, 외화LCR** 등 외화유동성은 양호

* 스왑레이트(% 3개월물): ('20.3.24)△2.98 (12월말)△0.04 ('21.1월말)△0.09 (2월말)△0.11 (3.12)△0.14
(↳외화자금시장에서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차입하는 금리(유동성풍부→상승 / 부족→하락))

** 외화LCR(% 일반은행 기준): ('20.3월말)113.4 (9월말)107.1 (12월말)107.4 ('20.1월말)106.2
(↳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서, 은행 외환건전성 측정지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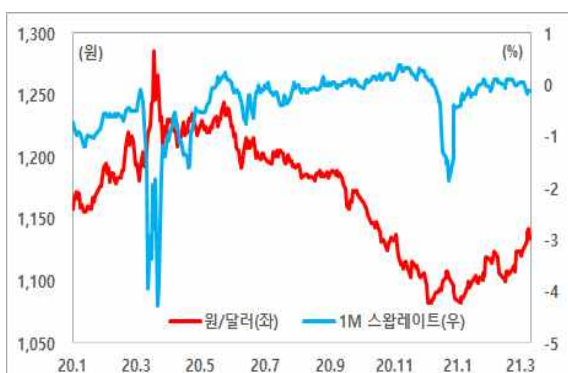
□ (외국인자금 유출입) 주식자금은 순유출, 채권자금은 순유입

- (주식)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△24.4조원 큰 폭 순유출('08년 △36.2조원 이후 최대) → 올해도 순유출 지속(1~2월 △5.9조원)*

* 1.25~29일간 외국인 △5.9조원 순매도 → '98.1월 통계 집계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순매도

- (채권) 주식자금과 달리, 지난해 +24.7조원 큰 폭 순유입('07년 +27.5조원 이후 최대) → 올해도 순유입 지속(1~2월 +10.1조원)

원/달러 환율, 스왑레이트 추이



외국인 증권자금 추이



나. 평가 및 전망

- **(외환시장) 환율·외화유동성 변동성 심화 가능성에 유의**
 - **(환율) 원화 강세·약세 요인이 혼재*된 가운데, 美 국채금리 등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는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**
 - * (원화 강세요인) 수출호조, 글로벌 경기회복, 유로존 경제회복(유로화 강세) 등 (원화 약세요인) 개인 등 해외투자 확대, 美 국채금리 상승 등
 - **(외화유동성) 유동성 확대로 글로벌 시장여건이 개선된 가운데, 韓美 통화스왑 연장(21.3월말→9월말) 등으로 국내 여건도 안정적**
 - 다만, 美 국채금리 상승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작년 3월과 같은 외화자금시장 불안 재현* 방지 등을 위한 대비 필요
 - * 3월 코로나19發 해외 주가지수 급락으로 파생결합증권 관련 마진콜(외환수요) 급증 →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부족 경험
- **(외국인자금 유출입) 대체로 안정적이거나, 불확실성 잠재**
 - **(주식) 올해 외국인 주식 매도는 원화자산 인식 악화에 따른 것 이라기 보다는 글로벌 증시조정, 차익실현* 등에 주로 기인**
 - * 증시 상승률(20.10말→21.1말, %): (美)13.1 (유럽)16.7 (日)20.4 (中)8.0 (韓)31.3 (대만)20.7 → 1월중 韓△52.5억불·대만(△33.9억불) 등 주가 상승률이 높은 亞국가에서 대규모 순유출
 - 향후 주식자금 유출입은 글로벌 주가 등 대외여건 외에 국내 경기 회복, 기업실적, 자본시장 신뢰(예: 공매도 관련)*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
 - * 블룸버그(24일 공매도 재개발표(2.24일) 前): "한국 공매도 금지로 주식과열 등 부작용 우려"
 - **(채권) 글로벌 저금리下 수익률 제고를 위한 신흥국 투자 증가, 상대적으로 높은 韓 국채 수익률** 등 반영**
 - * 신흥국 채권펀드 유출입(EPFR, 억불): (20.1Q)△497 (2Q)△25, (3Q)223 (4Q)457 ('21.1~2월중)225
 - ** AA등급 10년물 국채 수익률(3.11일 기준 %) : (佛)△0.10 (英)0.73 (뉴질랜드)1.72 (韓)2.09
 - 다만,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따른 과도한 유입은 시장 여건 변화(美 국채금리 상승지속 등)시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

☞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해외투자자 신뢰 유지 노력 병행

[참고] 최근 美 국채금리 상승 배경 및 환율·외국인자금 영향

① (동향) 최근 경기회복 기대, 인플레이션 및 수급부담 우려 등으로 美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* (1.6% 근접, '20.2월 수준)

* 10년물 금리(%) : ('19말)1.92 ('20말)0.91 ('21.1말)1.07 ('21.2말)1.40 ('21.3.11)1.54

① (경기회복 기대)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완화, 백신 보급 확대 등으로 美 경기의 '강한 V자 반등*' 기대 확산

* 美 GDP전망(3.9일 기준, IB 평균, YoY, %) : ('20.4Q^{실적})△2.4 ('21.1Q)△0.1 ('21.2Q)11.5

② (인플레)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+ 경기회복 전망 + 원자재 가격 상승

*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(10년물 국채금리-10년물 물가채연동금리, %) : ('20.6말)1.34 ('20말)1.99 ('21.1말)2.10 ('21.2말)2.15 ('21.3.11)2.29

③ (수급) 美 대규모 경기부양책 → 美 국채 발행량 증가 예상

② (시장 영향) 美 국채금리 지속 상승은 환율 변동성 확대요인이나,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 가능성을 초래할 가능성은 제한적

① (환율) 일반적으로 美 금리 상승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원화 약세 요인이나, 경기개선 기대 확산시 약세폭 제한

② (외국인 주식자금)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차입 부담 증가 고평가 우려 등은 유출 요인이나, 경기전망 개선시 위험회피 완화로 유입 요인 작용

▪ 다만, 외국인 주식자금은 금리뿐 아니라 경기·기업실적 등에 좌우

③ (외국인 채권자금) 수익률 추구를 위해 국내 순유입*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, 투자주체별 성향·환헤지 여부 등에 따라 차이

* 외국인 채권 순매수(조원) : ('19년)9.2 ('20년)24.7 ('21.1월)1.2 (2월)9.0

▪ 단기투자자는 유출 가능성이 있으나, 중앙은행·국부펀드 등 중장기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투자 지속 예상

▪ 다만, 여전히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미국은 물론, 동일 신용등급 국가 국채 보다 높은 수준*으로, 급격한 이탈 가능성은 제한적**

* 10년물 수익률(3.11일 기준, %): (佛)△0.10 (英)0.73 (美)1.54 (韓)2.09

** 과거 금리 역전(美 > 韓)시에도 영향 제한적(예 : '18~'19년간 韓-美 10년물 금리는 日평균 △40bp 역전 상황이 지속되었으나, 2년간 +24.8조원 순유입)

Ⅲ. 대응방향

1 외국인직접투자

- ◇ 「첨단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」 마련('21.上) → 외국인 투자 플러스 전환을 위한 선제적·맞춤형 투자유치 전개
 - 첨단 외투유치 인센티브 강화, 핵심 프로젝트 IR 등 중점 추진

□ 4대 부문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체계적 지원

- (선제적 타겟팅) 디지털·그린뉴딜 등 신산업* 분야 및 지역별 투자유치 핵심 프로젝트와 연관된 글로벌 기업 선제 발굴
 - * (디지털뉴딜) AI·빅데이터 솔루션 등, (그린뉴딜) 친환경·수소 등
- (맞춤형 인센티브) 현금·입지지원, 조세감면 등 지원 수단을 패키지화하고, 기업별 맞춤형 제안을 통해 협상력 제고
- (투자매칭 지원) R&D·제품개발 등 수요를 토대로 외투-국내 기업 투자매칭*, 신속한 투자결정 지원
 - * 투자유치 희망 스타트업, 중소·중견기업 투자 상담회 등 지원
- (소통 강화) 외투기업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지원하고, 경영 애로의 적기 해소를 위한 소통 노력 강화
 - 첨단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 채널 확대, '21년 외국인투자 주간* 등 주요 행사 개최 추진
 - * (행사개요) 그린뉴딜·디지털뉴딜 등 관련 정책 및 유망 산업 등 소개(포럼), 1:1 상담회로 구성

□ 첨단산업 투자유치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

- (첨단투자 지원강화) 현금지원 예산확대(‘21년 600억원, +50억원) 및 첨단·R&D센터 지원한도 상향 등을 활용해 첨단투자 적극유치
 - * (외투금액 대비 현금지원한도 상향) 첨단·소부장: 30→40%, R&D 센터: 40→50% (국비·지방비 매칭비율 조정) 수도권 3:7 → 4:6, 비수도권 6:4 → 7:3
 - 또한,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신성장·원천기술 세액공제 강화*,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FDI 인정 등을 통해 투자 선순환 유도
 - * ①R&D비중, 고용요건 등 폐지, ②이월공제기간 연장 : 5→10년
- (첨투자지구 신설) 첨단투자지구 지정·지원*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, 지자체 등과 성공사례 조기 창출 노력(산업집적법 개정)
 - * 지원 : 부담금 감면, 세제 지원, 임대지원 및 임대료 감면, 규제개선 신청 등
 - 인력·인프라 등이 구축된 기존 계획입지(경자구역, 산업단지, 바이오특구) 등을 적극 활용

< (참고) 첨단투자지구 지정 예시 >



□ 핵심 프로젝트 집중유치를 위한 IR 강화

- 국내 수요와 연계한 기술고도화, 공급망 안정 등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투기업을 타겟팅, 온·오프라인 IR 추진
 - EU·美·中 등 주요 투자국 대상 신산업·첨단 소부장·뉴딜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유치 역량 집중
 -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 중심*으로 추진하되, 유망업종 맞춤형 설명회 및 1:1 심층 면담 등 입체적으로 진행
 - * (上) 온라인·웨비나 IR → (下) 코로나 진행상황 고려 오프라인 IR 적극 검토

- ◇ 다층 지원체계 운영, 맞춤형 정보제공 등 기업 해외진출 지원
- ◇ 국내생산·고용 연계 등 해외직접투자의 국내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고, 해외직접투자 관련 통계품질 제고 등 기반 정비

□ 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

- (다층적 지원체계 구축) 국내 지원기관 + 정부간 고위급 협력 + 해외 거점 공관 등 투자 준비부터 해외정착까지 체계적 지원*

* 現 '해외인프라 수주·투자지원 협의회(기재부 1차관)'를 통해 범정부 해외투자 지원 인프라 연계 및 분기별 성과 점검

- 비대면 추세 확산에 대응하여 현지 인력을 활용한 현지실사·규제대응 등 진출기업 지원 강화

<해외인프라 수주·투자지원 협의회를 통한 해외투자 지원 체계>

국내 지원기관	정부간 협력	현지 대사관·공공기관인력
① 범정부 해외진출 서비스 제공 ② 마케팅, 홍보전략 수립 ③ 수출 선적, 물류비용 지원 KOTRA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수은, 산은, 무보, KIND 등	① 고위급 회담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사업회 발굴 ② 신규 규제정보 신속 문의 ③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기재부, 외교부, 산업부, 국토부, 해수부, 환경부 등	① 현지실사, 사무공간 지원 ② 현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인허가, 법률 등 컨설팅 ③ 지사화 서비스 제공 등 주재국 대사관, 공공기관 해외사무소(+현지인력),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

- (사업 발굴) KSP*·EDCF 등 다양한 정책수단 연계 및 MDB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 新시장 진출 기회 적극 발굴

* Knowledge Sharing Program: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및 정책자문 사업

- G2G 자문사업 등을 구체적 프로젝트로 심화·발전, 후속 프로젝트 발굴·참여, 현지 네트워킹 구축 등 전방위 지원

- (정보제공) 온라인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* '해외경제정보드림'('21.11월~)을 통해 AI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해외투자정보 제공

* 공공기관, 민간은행, 컨설팅사 등 59개 기관의 1,100여종 빅데이터를 통해 기업별 투자 희망 업종, 품목, 국가 입력시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

- 국가별 시장정보, 투자 인센티브·규제를 실시간으로 제공*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탐색비용 절감

* 美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투자환경(Investment Climate Statement) 등 활용

□ 생산·고용 등 국내 경제와 연계성 강화

- (현지법인-국내기업 매칭) 해외 현지법인이 필요한 제품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온/오프라인 매칭 강화*

* (예) ① 해외진출지원기관(KOTRA·중진공 등) 해외사무소, 현지진출 한국법인으로부터 '국내 조달희망 제품' 신청 접수 → ② 지원기관 국내본부에서 관리중인 '국내 수출 유망·희망기업' 제품과 대조 → ③ 일치시 양자간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등 지원

- (한국인 해외고용 지원) 베트남·필리핀 등 우리 국민·기업의 주요 진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* 체결 및 발효 추진

* 양국간 국민이 해외거주시 상호 사회보험료 납부면제 또는 해외 납부기간을 사회보험 가입기간에 산입토록 하는 협정으로 현재 미·중·일 등 41개국과 체결

- (GVC 고도화 지원) 소재·부품·장비 및 첨단분야 현지 M&A 정보 제공 강화*를 통해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 지원

* KOTRA 현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주요국 투자청·해외협력기관과 연계한 웨비나 설명회, 1:1 상담회 등 개최

□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부담완화 및 통계품질 제고

- (보고기한 완화) 거주자 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 시, 사후보고 기한을 '즉시'*에서 '7영업일내'(예시) 등 완화 추진

※ (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) ①투자자/기업 → ②신고 접수기관(외국환은행, 금감원, 한은) → ③수은·기재부 順 / '즉시'의 의미 명확화로 투자자 애로 해소

- (통계품질 제고) 해외직접투자 통계의 적시성·정확도 제고

- 통계 산출기간 단축(現 3개월→ 2개월)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 진단 및 정부의 관련 서비스 품질 제고

- (전자적 보고 허용) 사후보고 자료* 제출 시,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토록 규정상 근거** 마련

* 해외증권취득보고서, 송금보고서, 청산보고서,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

** 신규 해외직접투자, 해외부동산 취득, 현지금융 등에 대한 사전신고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토록 규정상 근거를 既 마련('20.8월, 외국환거래규정 개정)

- ◇ 「해외수주 활성화방안」(’20.6월) 후속조치 적극 이행 및 1~2분기 실적 모니터링 → 해외수주 보강대책* 마련(’21.上)
- * 30대 핵심프로젝트 동향 점검 및 사업발굴·금융지원 등 정책수단 보완·강화
- ◇ 정부-공공기관-민간의 “팀코리아”를 통해 ①코로나 방역 지원, ②금융지원, ③사업 발굴·기획 강화 등 수주 전방위 지원

□ 코로나 방역 지원 등 프로젝트 수주활동 기반 강화

- (방역 지원) 코로나 상황을 감안, Team Korea 수주지원단*을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, 해외현장 방역 및 출입국 지원도 지속
 - * 관계부처, 인프라(교통·에너지 등) 공공기관, 수은·무보·KIND·코트라, 민간 건설사 등
 - 해외 수주계약 등을 위한 필수출장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백신 우선접종 지원(3.17일부터 예방접종 신청 가능)
 - *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경우, 단기 해외출장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종할 계획(3.10, 중대본 발표)
 - 각국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가능성(예: 미얀마) 모니터링·대응도 병행
- (프로젝트 관리) 해외 인프라 수주·투자지원 협의회*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 동향 점검·관리하고, 고위급 경협채널 활용한 수주 지원
 - * 기재부 1차관 주재, 국토부·산업부·외교부 등 관계부처 1급, 정책금융기관 등

□ 정책펀드·수은 특별계정 등 활용한 금융지원 가속화

- (펀드) 글로벌 플랜트·인프라·스마트시티 펀드(PIS, 15조원)* 추가재원 조성 및 투자, 글로벌인프라펀드(GIF 4~7호, 0.4조원) 투자 활성화
 - * 펀드재원 1.2조원 既 조성(정부·공공기관 0.6조원 + 민간투자 유치 0.6조원) → 당초 목표인 1.5조원 조성 완료를 위해 연내 민간투자 재원(0.3조원) 추가 모집
- (수은 특별계정*) 지원국 및 지원분야 지속 확충
 - * 국가 신용도가 낮아(B+ 이하)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저신용국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(’19.5월 계정 신설, ’21년 1조원 조성 완료)
 - ’19.12월 1호 사업 승인(나이지리아 LNG, 4,500억원) → ’21년중 2호 사업 승인 추진

- (경협증진자금*) 지원확대** 통해 개도국 인프라 수주기반 확충
 - *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대출소요비용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, 대출 소요비용과 지원금리간 차이를 정부재원으로 보전하는 금융지원수단('16년 도입)
 - ** '21년 중 ①인니 도수로 사업, ②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 승인 추진
- (수출보험) 국내 수주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(상환기간 2년 초과)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한 중장기수출보험* 지원 개시('20.12월 도입)
 - * 국내기업으로부터 금융기관이 수출채권을 매입 후, 매입한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무보가 손실보상 → '21.上 파나마 메트로 사업 최초 지원예정

□ 정책자문 활용, 전문인력 양성 등 통한 사업발굴·기획 지원

- (정책자문) G2G 정책자문, ODA 등 통해 후속사업 수주로 연계 강화
 -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(EIPP)*, K-City Network** 등 상대국 정책자문을 통해 잠재 프로젝트 기회 선점
 - *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: 대형 인프라 관련(수도이전, 스마트시티 등) 계획수립·제도구축 등을 종합 지원하는 중장기(3년 이상)·심화(연 4~5건) 정책자문
 - ** K-City Network :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을 위해 국제공모를 통해 G2G 협력사업을 선정하고, 사업발굴·개발·기술 전수 등을 패키지로 지원
 - 우즈베크·인니·미얀마 대상 EIPP 2차년도 심층자문을 통해 구체적 사업화를 도모하고, 케냐*와의 신규 자문 착수('21.上)
 - * '케냐 콘자(Konza) 테크노폴리스 스마트시티화'를 주제로 세부 자문내용 협의 중
 - '21년 K-City Network 사업 발굴('21.2~4월, 국제공모)하고, 마스터플랜, 타당성조사, 초청연수 등 지원
- (인력양성) 사업발굴·기획, 리스크 관리 및 금융구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·관리할 전문인력 양성과정*('20년 신설) 지속 추진
 - * 충북대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, '20년 44명 수료 → '21년 45명 선발·교육 예정
- (컨설팅)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('21.5월), 글로벌인프라협력 컨퍼런스('21.9월), MDB 프로젝트 플라자('21.11월) 등 정보제공, 컨설팅 강화

- ◇ 외환시장, 외국인자금 유출입 변동성 완화 노력을 강화하고, 외채 관리 및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에도 적극 대응

□ 외환시장 안정 및 외환 인프라 개선,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

- 美 국채금리 등 국내외 금융·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, 급격한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 노력 강화
- 「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」(21.1월) 차질없이 이행
 - 외환건전성 협의회*를 신설(상반기중)하여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을 점검하고 외환건전성 관련 정책방향 협의·조정
 - * 참석대상: 기재부(차관 주재)·금융위·한은·금감원 부기관장
 -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신규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(대형 증권·보험사 대상, 연내)
-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해 외환거래 인프라 개선
 - 고객(기업 등)이 전자주문시스템을 통해 원/달러 현물환시장 거래 정보를 실시간 확인·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* 인프라 마련**
 - * (현재) 고객이 은행(달러)에 전화주문 → (개선) 전용앱을 통해 직접 호가확인·주문
 - **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자로 구성되는 외환시장운영협회를 통해 외국환중개사의 디지털정보 서비스망 구축, 은행들의 전용앱 개발 등 추진

□ 외국인투자자 신뢰 유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노력 지속

- 외국인투자자·IB 대상 비대면 IR 개최, 투자자 애로 해소 등 韓시장 신뢰도 유지를 위한 노력 지속
-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중장기 투자자 중심의 안정적 수급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 병행

IV. 향후 추진계획

추진과제	추진일정	주관부처
1. 외국인직접투자		
① 「외국인 투자 유치 로드맵」 발표	'21.上	산업부
②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	연중	산업부
③ '21년 외국인투자주간 및 외투기업 간담회 등 IR 개최	연중	산업부
2. 해외직접투자		
① 온라인 「해외경제정보드림」 구축	'21.11월	기재부
② 현지법인-국내기업간 매칭 강화	연중	산업부 KOTRA
③ 베트남·필리핀 등 사회보장협정 체결 및 발효 추진	연중	복지부
④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 사후보고 기한 완화	연중	기재부
⑤ 해외직접투자 통계 산출기간 단축 등 품질제고	'21.下	기재부
3. 해외수주		
① 「해외수주 보강대책」 마련	'21.上	기재부 국토부 산업부
② 해외인프라 수주·투자지원 협의회 개최	연중	기재부
③ Team Korea 수주지원단 파견	연중	전 부처
④ 글로벌 PIS펀드 추가재원 조성 및 투자	'21.下	국토부
⑤ 글로벌 인프라펀드(GIF) 투자 활성화	'21.下	국토부
⑥ 수은 특별계정 지원국가 및 분야 확충	'21.上	기재부
⑦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	'21.上	산업부 무보
⑧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추진	연중	국토부
4. 외국인자금 유출입		
① 외환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 노력	연중	기재부
②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	기발표 (후속조치 연내완료)	기재부 금융위
③ 원/달러 현물환시장 전자거래 인프라 마련	'21.下	기재부
④ 외국인 투자자 신뢰유지 및 저변확대	연중	기재부 금융위